

제목: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영양안보를 위한 기여

추진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을 2년여 경험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적응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위드코로나의 생활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겠으나 백신이나 식량과 같은 필수품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세계 기아인구는 8.1억명, 영양부적합 인구는 24억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년도(2019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식량공급의 주체로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우리의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호감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내용과 질적 우위는 물론이려니와 세계인의 식량영양문제에 대한 선진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서양의 낭비적 육식문화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곡류/채식 발효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동북아 음식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인의 음식 트렌드를 선도할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연구내용:

연구 총괄책임자 (박현진 재단 이사장, 고려대 교수)

- (1)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과제책임: 손홍석 교수, 고려대학교)
- (2) 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과제책임: 김정년 이사, 한국식품산업협회)
- (3)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과제책임: 윤은옥 부장,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 (4) 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과제책임: 이효정 대표, E&S 컨설팅)
- (5)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과제책임: 권태진 박사, GS&J)

연구방법:

- (1) 연구기간: 2022년 1월 - 2022년 6월 (6개월 과제)
- (2) 연구내용 분야별 연구자 선정, 집필의뢰(과제당 원고료 200만원)
- (3) 2022년 5월 식품안전의날 기념 세미나 개최
- (4) 총 예산: 2,000만원(연구비, 세미나 개최비용)
- (4) 2022년 6월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단행본 발간

기대효과:

- (1) 한국음식의 영양/경제 및 건강기능성 부각
- (2) 한국 식품·외식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3) 한국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세계로 확대